

사람만 있으면 신나게 놀 줄 아는 아이

아이와 어른이 함께 크는 세상

# 2013 산방과후 설명회



- ▶ 장소 : 송내동 463-62 (송내e-편한아파트앞 상가 3층)
- ▶ <http://sanbang.gongdong.or.kr/>
- ▶ 문의 : 032-661-9213 / 010-8718-0306(연혁:교사대표)



# 1. 공동육아 산방과후는?

◆ 부모와 교사,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교육 공간.

공동육아 방과후 10년 전통, 공동육아 부모협동조합.

부천 성주산 자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산방과후는 부모에게만 맡겨져 있는 방과후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2년 2월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모여 ‘산방과후’ 조합을 만들고 함께 운영해온 공동체입니다.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부모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교육현실 속에서 산방과후는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 성별, 문화적,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가 모여 출자를 하고, 함께 운영하며 모두 ‘우리 아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함께 키움으로써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생활, 문화, 교육 공동체가 되어 산방과후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공동육아 방과후> 알아보고 가실게요~



공동육아 방과후는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모여 자녀들이 공동체정신의 바탕 위에 창조적, 자율적, 자연친화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운영합니다. 공동육아 방과후는 2012년 3월 현재 전국에 13개가 있습니다.

제도권 교육인 학교교육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공동육아 방과후는 어떤 위치일까요?

아이들의 하루는 오전에 학교생활, 오후에 방과후 생활, 저녁에 가정에서의 생활로 보냅니다. 짝 짜인 교육일정과 많은 학생 수, 담임선생에 따라선 과도한 경쟁과 과제물의 부여 등 학교생활이 주는 중압감은 부모에게나 아이에게나 모두 공교육체제를 선택한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지내는 세 곳의 공간은 각각 다른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각각 다른 원칙에 의해 운영되므로, 아이들은 학교생활에서 겪는 문화적인 차이로부터 정체성의 혼란을 맞지요. 방과후는 그런 혼란 속에서 나름대로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육아 방과후는 우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1차적인 쉼과 재충전의 장소가 방과후인 거죠. 따라서 방과후가 학교의 보조집단이거나, 학원과 같은 사교육의 장일 수 없습니다. 방과후가 아이들에게 별개의 의미가 있는 장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의 숙제를 돌보아주는 장소이거나 피아노, 영어 등등의 특기 적성 교육의 장소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육아 방과후의 의미는 물론 질서와 통제로 이루어진 제도권으로서의 학교에서 받는 정신적인 압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쟁이 중심인 현재의 공교육이 수행할 수 없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런 점에서 방과후는 공교육을 포기하는 의미로서의 대안교육은 아니지만 공교육의 역할을 보완하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에 아이들 보낸다고 해서 가정의 역할이 줄 수는 없지요. 가정은 아이들을 직접적으

로 그리고 일차적으로 돌보는 곳입니다. 가정의 부모는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학교선생님과 관계를 맺고, 학습성취 및 진행을 점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감정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안식처입니다. 따라서 방과후에 보낸다고 해서 결코 그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오히려 방과후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방과후 교육에 참여하고, 방과후 교사와 관계를 맺고, 조합원으로서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방과후는 **또래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아를 형성해 가는 공간**입니다. 방과후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 2. 산방과후 교육활동의 특징



### 생활문화교육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삶과 교육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상생활의 흐름 속에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세상을 폭 넓게 탐색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으로 꼭 짜여진 학교와는 달리 일상적인 **생활 리듬**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교육이며, 삶에 필요한 생활방식을 배우고 익힙니다.

정해놓은 시간 내에 목표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아이를 몰아세우지 않고, 자발성과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한 생활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자연친화 생태교육

아이들이 집안에서만 지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곳,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아이들의 놀이가 중요시 되고 그 가치를 인정 하는 곳, 장난감이나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자연에서 아이들이 놀 줄 알고, 돌멩이 하나, 풀 한포기의 가치를 알게 하는 교육, 낮은 것, 하찮은 것, 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배우는 곳, 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갑니다.

##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

핵가족이 줄 수 없는 다른 연령층의 언니, 오빠, 동생들을 만나고, 더 이상 지역사회와 친척들이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또래집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내가 존중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 할 줄 알고,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생활하고 노는 즐거움을 알고, 때로는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생활과 놀이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하고, 협동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 나갑니다.

### ◆ 아이에게 **집처럼 편안한 보살핌!**

학기중: 월~금 오후 7시까지, 방학중: 아침10시~오후6시까지.

교사 1인당 아이 10명 규모 (현재 어린이 19명, 교사 2분)

### ◆ 아이에게 **안전한 먹거리!**

- 생협물품의 유기농 새참 (학기중: 오후 4시쯤 새참, 방학중: 점심-반찬아마- + 새참)

### ◆ 아이 스스로 더불어 **흠뻑 빠지는 놀이!**

- 텃밭에 빠지다! (주1회 이상 텃밭 나들이)

- 공동체 놀이에 빠지다! (매주 금요일 절기놀이, 요리, 공동체놀이...)

- 습식수채화, 직조, 뜨개질 등 손놀이에 빠지다

- 나들이에 빠지다! (저학년: 성주산 나들이, 가까운 놀이터나들이, 자전거배우기 ...

고학년: 자전거나들이, 프로젝트 나들이(2013.결만부),

다함께 나들이: 공연나들이, 성주산 넘어가기 나들이, 방학 2박3일 들살이 여행)

### ◆ 아이에게 **마을!**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 아이만 보내는 곳이 아닌 부모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곳

- 몇 년을 함께 사귀면서 세상을 배워가는 친구 언니동생 관계

## < 2013년 산방과후 구성 >

### ▶ 전체 아이들 19 명

-1학년 5명(남: 3명, 여: 2명) 류재휘, 박이은, 박시용, 이예원, 이상현

-2학년 3명(남: 1명, 여: 2명) 하가운, 김지인, 영가희

-3학년 4명(남: 3명, 여: 1명) 김준용, 이주천, 김우림, 박시현

-4학년 5명(남: 2명, 여: 3명) 손세진, 류소윤, 이윤지, 이해강, 김승주

-5학년 2명(남: 1명, 여: 1명) 한예준, 영가은.

-6학년 없음.

=> 15가구.

### 3. 산방과후 교육 활동

< 주간흐름과 하루흐름 >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00~	1,2,3,4학년 등원 후 쉬, 자유놀이		1,2학년 등원후 쉬		1,2학년 등원후 쉬 자유놀이
2:00~ 3:00~	1,2,3,4학년 산책이나 운동장 놀이  5,6학년 등원	1,2학년 등원 후 쉬, 자유놀이  3,4,5,6학년 등원후 쉬	고학년 긴나들이	1,2학년 등원후 쉬 자유놀이  3,4,5,6학년 등원	저학년 긴나들이  3,4,5,6학년 등원
3:00 ~3:30	간식		새참(외식)	간식	
3:30 ~4:00	들숨시간 (고;책읽기 저;숙제,책읽기)	텃밭활동 과  운동장 놀이	저학년 자유활동	들숨시간 (고;책읽기 저;숙제,책읽기)	시장놀이/ 절기 요리
4:00 ~6:00	모듬 활동(저) 자치회의(고)  선택놀이		마지막 주 산 넘어 가기(고,저)	습식수채화(저) 특별활동(고)  선택놀이	마지막 주 놀이대회

< 월간흐름 >

3월	1학년입학 / 새 학기 적응
4월	텃밭농사 준비
5월	봄 소풍
6월	단오놀이
7월	영화제 영화보기/상반기 발표회
8월	터전 방학 / 여름 들살이
9월	추석 / 작은 공연
10월	가을 소풍
11월	산방과후 설명회 작은 공연
12월	마니또의 날 / 애보내기
1월	터전 방학 / 겨울 들살이
2월	졸업 잔치

## < 산방 생활 흐름 들여다보기 >

### 등원 후 알림장 확인과 자기 물건 정리

일학년 입학 초 한 달간은 교사가 아이들을 터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터전에 들어오면 옷과 가방 같은 자기의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교사와 아이가 함께 알림장을 보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과제들에 대해 확인하면서 교사는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숙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휴식과 자유 시간

하교 후 얼마동안은 학교에서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공부를 해야 하는 긴장감을 풀고 눌렸던 기운을 편하게 이완하며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못한 아이들은 잠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자유시간은 실내 놀이 시간이며 여자 아이들은 그림 그리기, 소꿉놀이, 수공예나 책읽기, 삼삼오오 모여 비밀 수다를 떨거나 춤 연습을 합니다. 남자 아이들은 카프라로 만든 야구놀이나 바둑, 장기, 고누 등 보드게임이나 종이접기를 하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자유놀이 시간이라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혼자서나 여럿이서 함께 하며 놀 수 있지만 공간에 맞는 놀이,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는 놀이를 하며 냅니다. 한편 조용한 공간에서는 교사가 저학년 아이들에게 동화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의 휴식을 상상력이 활동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 산책

매일 산 아래 텃밭 주변을 따라 산책을 합니다, 매일하는 산책을 통해 성주산의 자연과 친구가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이 바뀌고 매일 아이들이 놀던 자리에 있는 나무들과 냇물들이 조금씩 변하는 동안 아이들도 함께 자라납니다. 생태교육이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연 속에서 놀이를 발견하고 만들어 노는 동안 아이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마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즉흥적인 생산성을 보장하고 현실의 압박과 조급함에서 벗어나 상상력의 활기를 마음껏 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산책이 끝날 때면 아이들의 마음 속 구멍이 모두 활짝 펴지는 느낌이 듭니다.

### 자치회의

생활을 계획하는 이야기, 생활을 되돌아보는 이야기 등을 하고, 생각나누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학년들은 교사의 주도로 시와 이야기들, 이야기와 연관된 그림 그리기나 노래, 끝말 잇기 같은 말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월요일 모둠시간 이외에 모이는 시간은 나들이를 나가기 전과 생활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할 것이 있을 때 수시로 이뤄집니다. 고학년의 모듬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자치회의로 이루어집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자치하는 사회가 방과후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구현되어 아이들 생활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일을 해나가고 갈등을 조절하며 방향을 찾아나가며 책임감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 예술 활동

습식수채화는 저학년들이 색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젖은 종이 위에 형태에 대한 이차적인 것으로의 색채가 아니라 색 자체로부터 색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화판, 물감, 붓, 줄서기, 종이를 팽팽하게 펴기, 액체의 물감을 섞이지 않도록 다루기..이러한 순서의 질서가 잘 되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므로 아이는 색의 언어를 경험하고 이해함과 동시에 반복하며 이뤄지는 준비

활동과 조심스런 움직임과 정리하는 습관 등을 몸에 새겨나갑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색을 탐색하고, 발휘한 후에 색들의 조화로운 느낌과 그 속에서 형태를 찾아나가는 예술적 치유적 활동입니다.

습식수채화의 회화적 활동과 더불어 크레용과 색연필을 이용한 자유로운 그림그리기들을 하고 특별히 형태그리기 같은 것들을 집중하여 하기도 합니다.

## 수공

수공은 자신의 몸을 사용하고 손가락을 움직여, 유연성 있는 생각을 실제적인 일로 옮기면서 자신이 다루는 사물을 이해하게 하며 재료의 성질에 따라 다루는 방법에 조심성과 주의력을 갖게 합니다. 손으로 하는 활동들에는 바느질과 직조, 간단한 장명루 만들기과 실뜨기 목공 소품들을 다루어 보기도 하며 겨울에는 많은 뜨개질 작업이 시작됩니다. 대바늘뜨기를 배운 후에 코바늘뜨기를 배우고 작품들을 만듭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답게 만들려는 노력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몸의 의지를 활동하게 합니다. 목공활동으로 2012년 교사와 함께 간판 만들기, 우체통 만들기 등을 진행 했습니다. 새총 만들거나 야구방망이는 아이들 각자의 성취물이 되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 텃밭노작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방과후의 일년 농사가 시작됩니다. 방과후의 텃밭 주변에서 아이들은 철을 알게 되고 철이 들어갑니다. 물을 집중적으로 줄 시기에는 매일 물을 주고 풀이 한창 자랄 때는 풀을 뽑아주며 벌레들이 많을 때는 벌레들과 놀면서 텃밭 농사를 합니다. 주변에서 익어가는 나무 열매가 언제 열리는지 어느길에 어느 풀과 나무가 있는지 아이들은 눈을 감고도 흰하게 알게 됩니다. 텃밭은 방과후의 두 번째 터전으로 매일 방과후의 저학년들은 산책을 겸한 텃밭 나들이를 합니다. 작은 텃밭 주변에는 함께 사는 작은 생명들이 있어 언제나 아이들의 놀 거리가 많습니다. 쓰러진 나무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몸의 균형을 배우고 도전을 하고 재미있는 소꿉놀이를 합니다.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고 가꾸는 것은 일거리도 놀 거리도 함께 하는 시간이며 우리 손으로 키운 것들을 우리 밥상으로 가져오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바른 태도, 생명과 교감하며,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에 대한 경험이 삶을 진실하게 살게 해 줍니다.

## 요리

한 달에 한번 정도 우리나라 세시절기에 맞는 음식을 해먹거나 아이들이 하고 싶은 요리를 합니다. 고학년과 저학년이 서로 한 팀으로 묶여 저학년은 주로 썰기와 섞기, 뒤집기 등 간단한 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고학년들이 이끌고, 좀 더 정교하고 세심한 일들은 고학년들이 맡아서 합니다. 요리는 칼과 불을 쓰는 위험요소들이 있어 아이들이 조심성 있게 일을 해야 하고 놀이보다는 짜임새 있고 잘 조직이 되어야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의 마지막 주에는 시장놀이를 합니다. 시장놀이는 모둠에서 나눈 팀이 한 팀이 되어 가게를 열고 물건을 만들어 팔고 수익을 팀원들이 분배하며 은행에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경제활동도 함께 합니다.

## 나들이

매주 수요일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5교시 수업을 하고 일찍 방과후에 옵니다. 일주일의 중심

이 되는 날, 아이들이 가볍게 주변의 산들과 자연으로 가는 나들이를 합니다. 저학년들은 1학기에는 거의 차를 타지 않는 나들이를 하며 마을의 길과 자연에 익숙해집니다. 2학기가 되면 한 달에 한 두 번은 차를 타고 나가는 먼 나들이를 가고 마지막 주 수요일은 방과후 아이들 전체가 성주산을 넘어갑니다. 박물관 관람과 축제 참여, 공연과 전시관람 등의 문화나들이도 먼 나들이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아이들은 함께 들고 나는 나들이를 하는 동안 같은 경험을 하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어 갑니다. 공공질서를 지키며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때와 장소에 맞는 좋은 자세를 지니려는 노력을 합니다. 일주일의 한가운데서 큰 숨 한 번 내쉬고 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날입니다.

2013년 나들이는 학년 통합으로 “걸어서 만나는 부천”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부천의 곳곳을 내 발로 걸어 다니며 경험하는, 살아있는 나들이 시간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향토 유적이거나 시설들을 찾아가 내 삶과 관련성들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나들이도 월 1회 공원시설을 찾아서 걷는 것보다 빠르고 자동차보다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자전거를 타며 스스로 몸의 균형감을 키우고 자전거를 타며, 고학년들은 더 멀리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갔다 오기도 합니다. 9월에는 자전거 캠핑도 다녀왔습니다. 월 1회는 고학년과 저학년들이 자신들만의 호흡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 **공동체 놀이**

매일 학교 운동장과 놀이터에서 움직이고 놀면서 몸의 능력을 키우고, 함께 노는 놀이를 하면서 신나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고학년과 함께 모이는 날은 판을 크게 벌린 축구나 피구, 오재미나 삼팔선, 꽃단지, 진놀이 등 모두 함께 하는 놀이를 하면서 형, 동생, 친구들을 이해하고 협력하며, 자기편이 이기기 위해 격려하는 놀이를 합니다. 놀이를 하면서 편을 기울지 않게 짜기,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약한 아이를 봐주기 같은 균형감 있는 태도들이 생기며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갈등을 푸는 문제해결력들이 높아지고 사회성, 인지능력, 몸과 머리를 함께 사용하는 능력들이 함께 길러지지만 무엇보다도 즐겁게 놀기 자체가 놀이의 목표이자 아이들 생활의 생생함입니다. 놀이가 잘 되고 충분할수록 방과후 생활이 만족스럽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래나 형, 아우 관계들이 긴밀해집니다.

### **들살이, 터전 살이**

들살이는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2박 3일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방과후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와 떨어지는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에서 스스로의 몫들을 해내고 자신의 몸과 물건들을 챙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도 좀 더 긴 시간을 긴밀하게 부딪치며 지내는 동안 즐거운 놀이를 함께 하고 어떤 놀이에 푹 빠져보거나 특별히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가는 장소에서는 익숙함과 낯섬을 함께 경험하면서 자신의 자라고 있는 상태를 의식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장을 보고, 밥을 할 수 있는 고학년들은 들살이를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 나가며 방과후의 경험을 심화하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인간으로 자라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터전살이는 터전에서 함께 밤을 보내는 것으로 아이들이 여유로운 방학을 이용해 할 수 있고 특별히 즐거운 여행이나 파티 같은 설레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즈음에 하는 해보내기 터전살이는 한 해를 정리하며 서로가 한 해 동안의 성장을 함께한 동료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는 시간이 됩니다.



**< 저학년 집중 활동 >**

**성주산 산책**

매일 성주산에서 놀며 변해가는 자연 속에서 산다.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을 즐기고 자연 속에 자신들만의 놀이를 숨겨놓는다.

**< 고학년 프로젝트 활동 >**

**자전거 여행**

내 몸으로 도전하고 함께 길을 찾아 나가며 자신감을 키우고, 내가 살아가는 자연과 문화를 접하여 배운다. 함께 하는 길동무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좋은 관계를 만든다.

**걸어서 만나는 부천**

내 발로 부천 곳곳을 걸어서 부천의 지리, 역사와 문화 생활상들을 만난다.

## 4. 산방과후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

-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조합원(부모)과 교사가 함께 운영합니다.
- 조합의 기구에는 조합원 총회, 이사회, 감사, 교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 조합의 최고의결기구. 조합원 총회

- \_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연말에 개최한다.
- \_하는 일 | 정관의 개정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모든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추진. 출자금의 증자와 감자. 교사의 선출과 해임 추진. 예산안의 결정과 결산의 승인 등

### 조합의 최고집행기구. 이사회

- \_총회에서 선출한 부모조합원(이사장, 재정이사, 조직이사, 시설홍보이사)와 대표교사 등으로 구성.
- \_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교사는 방과후 운영 실무를 책임지고 운영실태에 대해 평가하며,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_하는 일 |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결 집행. 공동육아 방과후 운영에 관한 사항. 교사의 임명과 해임.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승인. 예산의 수립과 집행. 각 소위원회에 참여해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

### 산방과후 일과와 교육 환경 전반의 운영. 교사회

- \_공동육아 방과후의 교육내용에 관하여는 교사회가 1차적 결정권을 갖고 책임진다.
- \_언덕(대표교사), 바다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 조합원들의 운영에 대한 일상적인 참여와 제안

- \_방모임 : 방별 교사와 부모 월 1회 모임. 방별 교육 활동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
- \_아마 : 조합원은 주말 청소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일 교사(아마활동)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궁금하실 때 연락처>

아이들 생활, 교육부분, 상담요청 => 대표교사	언덕선생님
면접신청서 제출, 등원날짜, 적응 => 조직이사	주천엄마
가입비, 출자금, 교육비 납부 => 재정이사	세진엄마, 루돌프
터전 전반운영 => 이사장	가은엄마, 공룡
터전 시설 및 커뮤니티, 홍보관련 => 시설홍보이사	가운아빠, 누룽지

## 5. 산방과후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곳입니다.

\_공동육아 방과후의 이념과 교육 원칙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_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하시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 조합원의 권리

조합의 사업과 운영,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운영위원,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동육아의 일꾼으로서 공동육아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

### 조합원의 의무

조합의 화목과 발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총회와 그 밖의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한다.  
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성실히 지킨다.

\_조합원으로서 참여할 일

o 총회와 조합의 각종 행사에 참석

o 아마활동 참여

- 청소아마 : 매주 주말에 조합원들이 가구별로 순번을 정해서 터전 청소 (분기별 1회 정도)

- (교육)아마(일일교사) : 교사의 휴가나 재교육시 교사를 대신하는 일일교사 활동 (연간 2-3회)

\* 아마 : ① 아빠엄마의 줄임말로 '부모' 라는 뜻 ② 아마활동(일일교사)의 줄임말

\* 터전 :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 반찬아마 (방학중, 학교급식 없을 때), 차량아마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곳 또는 긴급시)

o 대청소 :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터전 시설을 보수, 정리, 청소하는 활동 (연1-2회)

o 조합원교육 : 방과 후 교육의 방향과 원칙을 공유하거나 부모 공통의 관심사를 교육 (연2회)

o 방모임 : 아이들과 교육활동에 대해 교사와 아마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 조합 일에 관한 의견 수렴의 통로(월 1회)

\_총회, 대청소, 아마, 전체모임, 조합원 교육, 주말청소의 참석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조합원에게는 총회에서 의결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산방과후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산방과후 가족이 되시는 겁니다. ^^

###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

1. 사교육(특히 주지교육)은 지양합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실천해주세요.

2. 1학년의 경우 산방과후 외에 다른 곳은 다니지 않는 것이 적응을 돕고 안정감 있게 합니다. (취미활동은 2학년부터 생각해주세요)

3. 산방과후는 자율적인 공간이라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이 드러납니다. 결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천국이 아니지요. 오히려 문제는 더 드러날 수 있어요. 그때 교사와 아마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공동육아의 진수를 맛보세요.

4. 아이에 관한 면담은 언제나 교사께 열려있어요. 하지만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제안은 방모임과 이사회를 통해주세요.

## 6. 가입절차

### 1. 문의 및 상담

산방과후 누리집(sanbang.gongdong.or.kr)이나 여러 자료를 살펴본 후 산방과후에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게 되셨다면 산방과후의 문을 두드리세요. 터전(032-661-9213)이나 대표교사에게 전화(010-8718-0306, 언덕) 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더 물으시고 더 많은 정보도 얻으셔도 좋아요.

### 2. 면담 신청 (오늘 신청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단 11월 22일까지)

아이를 공공육아에 보낼 결정하셨나요? 면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면담 날짜는 이사회, 대표교사와 상의하여 연락드립니다.

### 3. 면담 (11월 말 - 12월 첫 주)

면담시에는 아이의 부모가 모두 참석하셔야 하며 이사회, 교사회가 참석하게 됩니다.

면담의 과정은 탐색의 과정입니다. 아이와 부모는 산방과후가 잘 맞을지 생각해보고, 면담위원들은 아이와 부모가 산방과후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 3. 이사회의 조합원 가입 승인 (12월 2주)

면담 가구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4. 가입비 납부 및 조합 가입 (12월 20일까지)

이사회의 승인이 나고, 아이의 등원이 최종 결정되었다면 가입비 30만원을 아래 안내된 지정된 계좌에 납부합니다. 납부한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입비를 납부하시면 가입대기자(가입자)가 되며 가입대기자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5. 조합원 가입 및 아이 등원

교사회와 상의하여 아이의 등원일을 확정하고 등원 전까지 출자금, 기부금 및 다음 달 교육비(선납)를 납부하여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등원일에 아이를 등원시킵니다.

이때부터 아이들도 즐겁고 어른들도 즐거운 산방과후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 가입비, 출자금, 기부금

### 1. 출자금 - 270만원 ( 농협 351-0289-1921-73 부천산초등방과후교실)

단, 추가 자녀 한명당 50만원 추가. 출자금은 터전자금으로 사용하며, 탈퇴 시 반환.

단, 현재 산방과후 이사회에서 기부금제도를 논의중이며 12월 총회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2. 가입비 - 30만원 ( 농협 351-0289-1921-73 부천산초등방과후교실)

가입비는 조합시설, 교재교구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음.

### 3. 교육비 - 350,000원(1-2학년), 300,000원(3-6학년) + 특별경비 (달마다 변동)

(농협 301-0076-1140-11 부천산초등방과후교실) 매월 3일까지 납입.

교육비는 교사 등의 인건비, 아이들 식대, 교육활동비 등으로 사용됨.

교육비 외에 특별경비로 행사비(조합행사)가 다달이 다르게 추가됨.

**조합비 (15000원) :** 산방과후 조합원이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자동가입되어 회비를 냄. 등원 아이의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월 15000원.

● 고맙습니다!